

제 자신을 우선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Anne Mulqueen 이며, 국가 형제회의 양성 위원회의 영적 보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5 년전 종신서약을 한 후 재속 프란치스코회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 왔습니다. 제가 34.5 년전 처음으로 선출된 역할은 발티모어의 Mary Our Queen 단위 형제회의 양성부장직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양성분야의 체험이 그 후 형제회에서의 역할에 큰 도움에 되었던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첫 선출직이었던 양성부장에 당선된 기회가 바로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던 여러가지 방법으로 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미 국가 양성위원회 현의장, Diane Menditto, OFS, 께서는 위원회원 각자에게 돌아가면서 TAU - USA 에 기재할 양성에 관한 논문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따라서, 독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양성위원 각자의 글을 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우리 위원들 각자가 택하는 주제 안에서 각 필자들이 내 놓고 싶은 내용을 접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값지고 훌륭한 내용들을 우리가 내 놓을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자신이 최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알고 있기에, 성령님께서 나에게도 무엇인가 값진 것을 쓸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실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육화, 즉 거룩하신 삼위일체 가운데 제 2 위가 제가 택한 주제입니다.

재속 프란치스코의 삶 안에서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님.

재속 프란치스코회 대부분의 회원들은, 적어도, 회칙 4 조의 첫 구절을 읽으신 적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의 회칙과 생활은 이러 하다: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사람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당신 생활에 영감을 주는 분이자 중심으로 삼으셨다.

회칙 4 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의 영감이요 중심으로 삼으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하며,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주의 깊게 읽음으로서, 우리는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4:7).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즉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따라 가야 할 길의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만이이십니다.”(골로사아서, 1:15).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혀진 것들입니다.

양성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은 성 프란치스코께서 회개한 후,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성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쓴 적이 있었습니다. 변화된 성인도, 젊은 한

때, 전쟁을 통하여 명예를 추구한 적도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교회의 길로 눈을 돌려, 나환자와의 만남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느님의 집을 재건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길로 전환한 것이다.

재속 프란치스칸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 수위권의 중요성

육화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 복음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 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느님의 영상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완전히 자유이신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 의하여 주님 자신이 들어내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John Duns Scotus 가 주장한 그리스도 최우선론은, 하느님은 천국을 자유로이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육화 사실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에게 천국의 사랑을 자유로이 들어 내시었다는 사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육화하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느님 자신이 사랑과 선 자체이심을 들어내 심으로서 하느님의 신성을 들어내셨습니다.

많은 우리들은 프란치스칸들의 다음 질문에 친숙하기도 합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안 했어도, 예수님께서서는 오셨을까? 이 질문은 죄의 본질문제와 예수님의 구원사업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태초로부터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 모두를, 생명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삼위일체의 생명과 사랑에 이끌려 가시려는 하느님의 의도를 밝히려는데 있습니다. 원래부터 전지전능 하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본성이란 흘러넘치는 사랑이라고 주장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Bill Short, OFM, 의 말을 빌리자면 : “하느님께서서는 웅덩이를 메꾸려 Taj Mahal 를 세우시지는 않으셨다.” 육화의 은총에 비교할 때, 우리들의 죄는 길 한가운데 떨어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 인류의 청사진과 모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따라 창조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 되었지만, 우리는 그분의 모습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성경구절은 골로새서 1 장 27 절에 있습니다.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이 성경구절은 우리 회칙의 서론에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만일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드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애쓴다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쉬시고 나는 “천상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며, 그리고 배우자, 형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 거룩한 삶이, 모범으로, 다른 이에게 빛이 되어 준다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며 또한 당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눈을 통하여 볼 때,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중심이신, 서우리에게는 온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알찬 결실을 맺으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신 성부, 성자와 성령님을 들어내 주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영광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대들의 가슴 속에 살아계시기를 빕니다.

묵상을 위한 주제들: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스도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을 어떻게 들어내십니까?
자신이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라는 부르심이 들리십니까? 그 부르심이 그대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주고 있습니까?